

## [보도자료] 쿠팡 ‘나를 위한 주방’ 전문관에서 전부 만나보세요!

2020. 3. 31.



-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주방용품 32만여 개 제안
- ‘홈족(Home+ )’을 겨냥한 홈바, 홈카페 테마로 관련 상품 추천

2020. 3. 31. 서울 – 쿠팡은 1인 가구 고객을 겨냥한 ‘나를 위한 주방’ 전문관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. ‘나를 위한 주방’ 전문관은 주방 카테고리 내 별도의 전문관으로 꾸몄다.

쿠팡은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주방용품 32만여 개를 한데 모았다. 이번 전문관은 한 사람을 위한 요리에 최적화된 미니밥솥, 미니그릴부터 좁은 주방의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납도구까지 다양한 구색을 자랑한다.

이번 전문관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이블웨어, 맥주잔, 커피머신 등 집에서도 레스토랑이나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홈밥, 홈바, 홈카페 용품을 별도로 모았다는 점이다. 최근 외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 속,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‘홈족(Home+ )’을 겨냥했다.

합리적인 가격대도 장점이다. SK매직 고급형 전자레인지 20L를 7만 2000원대, 대웅모닝컴 에어프라이어를 4만 2000원대, 쿠팡 코멧 키친 마블코팅 프라이팬을 1만원 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.

한편, 쿠팡이 이렇듯 1인 가구 주방 전문관을 마련한 것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방가전 및 주방용품 시장에서도 1인 가구용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. 통계청에 따르면, 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총 59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.8%를 차지했다. 늘어나는 1인 가구만큼 소비 규모 역시 2010년 60조 원에서 2020년 120조 원으로 두 배 성장할 전망이다.

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“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해당 고객층을 위한 상품군이 늘어났다”며 “고객이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전문관을 개편했다”고 말했다.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해 라이프스타일별에 맞춘 전문관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